



光云電子高總同門會

제19호

2015년 1월 1일(목) <http://www.kw00.net>
139-875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1길24 예지관

전화(02)919-0522 Fax(0505)919-0522
회장 : 류 희 근 사무국장 : 김 귀 중

2014년도 총동문체육대회 & 회장배골프대회 성대히...

총동문체육대회

■ 지난해 10월19일(일) 오전10시에 모교운동장에서 33회가 주관하는 서른한번째 총동문체육대회가 열렸다. 류희근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조무성 재단이사장 및 김경채 모교교장선생과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마무리 되어 한차원 높은 광운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1회 동문부터 38회 동문 텐트까지 가지런히 설치된 모교운동장은 손님맞이를 위해 잔치 집 그대로였고, 간간히 흘러나오는 연주에 발맞춰 모교로 들어서는 동문들의 발걸음이 한층 가볍게 보이기도 했다.

〈관계기사 4면에〉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 지난해 10월30일(목) 강원도 원주 센추리21CC에서 류희근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동문 29팀과 운영진 등 120여명이 대회에 참가해 열띤 광경을 연출했다. 지난해부터 대회를 가져왔던 센추리21CC는 광운인이 전체를 전세 낸 듯 각 코스를 차지했고, 류희근 총동문회장과 김영건 고문의 멋진 시타를 시작으로 대회가 진행되면서 각 코스로 이동하는 카트가 자기자리를 찾아 떠났다.

〈관계기사 5면에〉

▶〈사진〉2014년추계가족등반대회에서 인사하는 류희근 회장



총동문체육대회 종합우승 28회

■...28회(회장, 피인화)동문들이 이번 대회 우승을 위해 장기간 훈련을 하고 좋은 결과를 노려왔음을 알 수 있다. 족구와 홀라후프, 장애물릴레이에서 우승을 해 총점 850점을 얻어 독보적임을 과시하듯 확실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 실시한 장애물릴레이는 중간 중간에 홀라후프와 줄넘기를 준비했고, 달릴 수 있도록 해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장애물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에게 유리했고, 부인들의 실력도 무시할 수 없었다. 28회 장봉학 동문 부인 김용희님의 확실한 실력에 의해 우승을 할 수 있어 종합우승까지 거머쥘 수 있었다.

텐트안에 테이블, 의자 비치

■...이번 총동문체육대회에선 지지난 해와는 달리 각 기수별 텐트 안에 테이블과 의자를 비치했다. 지지난 해 대회에서 많은 동문들이 필요성에 대해 요구를 했고, 이를 검토한 결과 결정된 것이다. 많은 동문들로부터 잘 결정했다는 의견이 있었고, 사실은 장시간 맨 바닥에 앉아 친구들과 담소한다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좋은 평가가 나온 만큼 내년에도 같은 조건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구설수에 오를 것 같다는 분위기다.

33회 동문들의 정성

■...이번 체육대회 주관은 33회 동문들이 했다. 했다가보다는 해냈다는 표현이 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매년 봄에 해왔던 체육대회가 예기치 않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몇차례 회의를 통해 가을로 옮기게 됐고, 그 과정에서 모든 준비를 했던 33회 동문들은 그간에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보류했고, 여름부터 새로 시작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어찌보면 두 번 체육대회를 치르는 결과를 거쳤기 때문에 33회 동문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이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총동문추계가족등반

■...2014년11월9일 추계가족등반대회를 가졌다. 임철원 산악회장은 도심속에서 동문 또는 동창들과 가족이 가볍게 대화를 하면서 산책을 겸한 운동을 하기엔 적절한 곳이라며 개회식을 하고는 바로 걷기에 들어갔다. 거리에 있는 가로수도 자신의 역할을 다 한 듯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주변에 사는 주민과 외지에서 온 사람들로 섞여 줄을 이어 걷고들 있었다. 전체 거리가 7km로 2시간 반이면 충분히 걸어 돌아올 수 있다.

〈관련기사6면〉

'2015년 신년회'

총동문회는 2015년도 신년하례회를 1월20일(화) 오후6시30분에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동문 및 동문가족이 함께 모여 새해맞이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각 동창회 임원은 물론 동문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은 양의 해로 양은 유순하고 이해심이 많은 동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선후배가 덕담을 나누며 안녕 무사한 을미년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대중교통이 사통팔달인 곳이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잊지 마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년회1월20일(화)

〈會長新年辭〉 2015년은 서로 아우르는 해가 되기를...



이제 새로운 기운이 온 천하에 뻗치고 사랑과 희망이 샘솟는 양띠해인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선후배 동문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팎으로 다사다난이라는 단어가 어느 해보다도 딱 들어맞았던 2014년을 뒤로 하고 오로지 온순함 그리고 척박한 곳에서도 고귀한 생명력과 기품을 잃지 않는 양의 무던한 힘을 빌려 올 한해의 희망을 노래하고 유

익한 기운이 모든 동문 여러분께 고루 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해는 제18대 총동문회장의 임기가 다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4만2천여 동문의 가슴을 아우르는 한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언제인가 부턴지 몰라도 8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동문들의 자긍심과 함성은 왜소해지는 듯 또는 나약함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은 저만의 기우가 아니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동문사회에 좀 더 긍정적인 기여가 문화 창출을 위하여 정감 있는 사람과 존경의 마음을 불어넣기 운

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격이 있는 호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호칭은 사랑과 존경심이 절로 우리나라오도록 해 주는 기초예의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 동문사회에 널리 퍼질 때 우리의 자긍심은 되살아날 것이고, 결국은 전체를 아우르게 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올 한해에도 동문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건강과 함께 꼭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며,
총동문회장 류희근

'2014년 갑짜년은' 크고작은 사건 수두룩해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해가 바뀌면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다듬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4년을 맞이하면서도 같은 과정을 겪으며 신년을 맞이했다. 초하룻날 먼동이 트는 곳을 향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도 해 봤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 빼고는 될 뻔한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시간이 지나갔고, 일년을 다 보내고 그믐에 와 계산을 해 보니 허무한 느낌이 와 닿는다. 그리고 또 다른 신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것이 세상이니지는 몰라도 매년 반복되는 듯한 세월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2014년은 정말 다사

다난 했다. 신년 들어서면서 새롭게 탄생된 도로명주소제 실시가 시행됐고, 개인정보 유출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다. 탑승객 476명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도로명주소 실시 개인정보 유출 세월호 침몰사건 등 발생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라고 지진에서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국 여기저기서 약하게 지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울 지하철2호선 왕십리역에서 열차 추돌사건이 발생해 열차 2량이 탈선을 했고, 24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현대판 고민이면서 해결하기 어렵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싱크홀이 강

남을 위주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서울시민이 공포를 가슴에 안고 통행을 해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군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기강 또는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서 총기사건이 발생되기도 했고, 사병끼리 폭행을 해 숨지는 사건이 생기는가 하면, 의식을 잃을 정도로 집단 폭행을 했으며, 고급장교 또는 영관장교들의 성희롱 사건으로 사회적 문제로 야기 시켰다. 기강이 가장 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안보만을 먹고 살아야 될 군에서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면서 나라 전체가 혼란의 시대를 맞은 2014년이었다.

군부대에서도 문제발생 잘못된 생각과 안이함이 기본질서 파괴 이렇듯 2014년은 많은 일들이 발생됐고, 이런 사건들이 나라경제의 발목을 잡는 현상까지 나타났고, 그 후유증이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켜 혼란스러웠다.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일들이 쌓이고 쌓여 일이 커진 것으로 본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위해 해결해야 되고, 온갖 부정을 동원해서라도 나만은 어려움 없어야 된다는 생각과 자기 이기주의와 님비

〈광운동문논단〉 '재단이 해야 할 일들...'

광운탄생 80년이 지난 5월20일로 이미 지났다는 걸 모르는 광운인은 없을 것이다. 80년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80세이며 산수라고들 한다. 현재의 광운학원 초기는 정규 과정을 이수하는 코스는 아니었다. 요즘의 분위기로 볼 때 학원이었다. 처음 시작은 6개월 코스였고, 후에 1년 코스 또는 2년 코스로 바뀌면서 정규과정 코스에 점점 가깝게 교육하면서 해방 후에 정규과정으로 인가를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조선무선강습소와 조선무선공학원을 수료한 13년간의 동문들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과 연락처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번 광운80년사를 제작하면서 수소문해 찾아낸 몇몇 동문들을 확인하고 그때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인 것이다. 정규코스로 인정받은 1948년부터의 역사 또한 제대로 정리해 된 것이 없다는 것도 아쉽다. 이제는 광운탄생 80년이 됐고, 정규과정으로 시작된 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66년이 넘었다. 이제야말로 여든살을 넘긴 어른으로서 늘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길 때가 아닌가 한다. 우리 민족은 자신의 뿌리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어느 가정든 자신의 뿌리가 담긴 족보를 안 가지고 있는 집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 이번 개교80주년을 맞이하여 재단에서는 지난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내용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확인하면서 80년의 역사를 제대로 남기는데 전력을 다해 줄 것을 권한다. 우리말에서 80세를 일컬을 때 일반적으로 文語로 八旬으로 표현 한다. 앞으로 90세, 100세를 맞이할 것이다. 제대로 된 역사 하나 없어 재단 관계자의 입에서 모른다는 말이 나온다거나 누구의 불찰이라고 둘러대선 안 될 일이다. 개교 80년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재단에서 갖춰야 할 일 들임에 틀림없다. 이번에 총동문회에서 '광운80년사' 제작을 위해 많은 동문들을 만나면서 갖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평소 조금씩 정리가 되었다면 80년을 맞으면서 이렇게까지는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많은 것을 수집하고 정리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산재해 있다고 본다.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리해 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상 같은 것들이 잘못된 생각을 양산하게 만들고 있다.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한해를 정리하는 위치에서 기억에 남는 큰 사건만 해도 이렇듯 즐비하게 많다. 이외에도 소소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제야 말로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다. 있어선 안 될 일들은 과감히 버리자. 그래서 2015년 양의 해에는 양처럼 순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줬으면 한다. 2015년 양의 예언 착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볼 수 있기를 양은 유순하기도 하지만 자비롭고 온화하며 이해심이 많은 동물로 알려져 있다. 이해심을 백번 발휘해 보자. 님비현상이란 것이 있다.

영어로 NIMBI(Not In My Back Yard)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집 뒷마당엔 안 된다는 뜻이다. 그 예가 쓰레기 소각장과 분뇨처리장, 화장장 등의 시설이 필요한 줄은 알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사절이라는 것이지만 이제는 그런 관계를 떠나 님비의 반대인 핼피현상(PIMFY·Please In My Front Yard)으로 바꾸는 아량도 갖춰야 된다고 본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아주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꾸면 말이다. 몇 백년 전부터 내려온 잘못된 행태와 관습을 버리고 국민의 기본질서를 지켜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어린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새롭게 출발하는 원년으로 삼아보자. 전국민 모두가...

광운만평 <김형태>

2015 을미년

개인, 가정이 발전, 부흥하며 특히 "광운" 인들이 크게 발돋움!!

착하고 유순하며 화목하고 평화롭게 사는 동물

〈대회사〉

동문회장 류희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후배 동
문가족 여
러분!
그 리 고
내·외귀
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모교가 조선무선강습소로 시작하여 개교8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런 뜻 깊은 해에 온 동문과 더불어 제31회 총동문체육대회의 한마당을 모두의 추억이 깃든 월계의 교정에서 펼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일련의 아픔으로 인하여 오랜 전통이자 역사인 개교기념일이 속한 5월18일을 피하여 예외적으로 청명한 가을하늘에서 갖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원래대로 되돌릴 것입니다.

오늘은 33회 동문들이 마치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행사를 주관하듯이 헌신하여 알뜰하게 마련한 한마당의 축제이니 만큼 동문 모두는 참여의 즐거움과 함께 하는 기쁨으로 동문사회의 존경과 사랑을 듬뿍 나누시고 웃음으로 가득 하시기를 기대하며 어느 해보다도 훨씬 재미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선후배 동문가족 여러분! 총동문회에서는 개교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광운80년사 및 인명록 발간 그리고 모교에 전자과학박물관과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로 성공적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총동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과 모교의 교직원여러분, 그리고 두 번씩이나 준비하시느라 애쓰시고 주관해 주신 정현근 회장을 비롯한 33회 준비위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황을 이뤄주신 선후배 동문가족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집행위원장 정현근(33회)

푸릇 푸릇
했던 신록
의 계절인
여름이 가
고 선선한
남풍이 온
몸에 새로



운 기운을 불어 넣는 가을입니다. 청량한 가을 하늘 아래 그 동안 동문의 긍지를 갖고 각자의 영역에서 눈부신 활동과 활약을 해 오신 동문여러분!

오늘 동문여러분과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총동문회장님, 선후배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귀중한 시간 허락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무성 이사장님과 비롯한 김경채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서도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체육대회는 동문회 발전과 모교 발전을 위한 친목의 한 마당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문여러분!

옛말에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동문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학창시절을 같이 보낸 사이이며, 같은 교정에서 같은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학문을 익히고 심신을 단련하였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광운인의 자부심과 긍지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문회 체육대회를 맞이하여 동문들 간에 끈끈한 우정이 더욱 유지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에 옛 정을 나누고 정당한 경쟁을 통하여 몸과 마음에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체육대회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우리 33회 동창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문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깊어가는 가을처럼 풍성한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재단이사장 조무성

광운 전자
공업고 등
학교 개교
80주년 동
문 체육대
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류희근 동문회장을 비롯해 본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총동문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교 동문회 체육대회는 저에게 학원의 모든 행사 중에서도 매우 특별합니다. 제가 동문인 이유도 있지만 광운공고 동문 여러분은 학교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구분 없이 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애교심과 지원이 오늘의 광운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이번 동문 체육대회는 개교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체육대회를 통해 동문들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모교의 발전을 위해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개교 100주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차게 달려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 한 번 광운공고 동문 체육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총동문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모교교장 김경채

온 누 리
가득 노력
의 결실이
충만한 계
절에 모교
교정에서
광운 동문



선후배가 함께 하는 제31회 동문 체육대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체육대회를 위해 각지에서 모교를 찾아 주신 동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모교 발전에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체육대회관련 인사말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사장님과 동문회장을 비롯한 여러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동문으로서 긍지를 잃지 않고 각계각층에서 눈부신 활동을 해 오신 동문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의 행사를 통해서 학창 시절의 꿈과 열정, 웃음과 눈물이 함께 어우러졌던 교정에서 선후배와 동기가 한 자리에 앉아 옛정을 되살리고 웃음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모교를 잊지 않는 자랑스러운

선배로서 모교 재학생들이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학교 교직원들은 광운의 후배들이 훌륭한 선배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면서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동문 체육대회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동문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정기총회

2014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12월3일 오후 6시30분에 강남 JS문화웨딩홀에서 총동문회 임원 및 관심 있는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항상 정해진 순서에 의해 개최선언이 있었고, 국민의례가 있었으며, 회장 인사말에 이어 조영재 고문께서 축사를 했다.

그리고 2014년도 업무보고와 재무보고 그리고 감사보고가 있었고, 안전심의에 들어갔다.

안전은 크게 세가지였으며, 첫 번째가 2015년 신년회 개최의건이었고, 두 번째가 예산의 건이었다.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었고, 세 번째 안건으로 년3회 발행되는 총동문회보의 제호를 큰 틀에서 바꾸어 보자는 동문들의 의견에 따라 제호를 바꾸는 것으로 안전에 올라왔지만 동문들 다수가 심도 깊게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 결정하자는 제의에 따라 다음 기획에 논의하기로 하고 정기총회를 끝냈다.

이번 정기총회에 앞서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광운80년사' 발행을 위한

그간의 설명회 및 임원 감수 절차가 있었다.

설명회는 빔프로젝트에 의해 설명하는 것으로 했으며, 처음 1장부터 2장까지 설명을 했다.

이번 광운80년사는 총 3장으로 되어 있으며, 1장은 연혁을 포함한 설립자 탄생과 성장과정 그리고 조광운의 격변기, 가족관계, 꿈, 개교 초기의 어려움, 화도선생의 흔적들, 창학이념, 교목과 교화, 등을 정리했으며, 2장에서는 학교변천과정과 국비장학생의 역할과 성과, 선생님 현황, 총동문회의 탄생과 역대회장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리고 3장은 각기별 자랑거리와 동창회 관련내용이 사진과 함께 각각 10페이지 내외로 기록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부터 취재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설명하면서 질문도 받았다. 참석한 동문들 대다수가 편집방향을 알겠다고 수긍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광운80년사를 금년 중으로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각기별 데이터가 늦게 접수되는 관계로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이른 아침부터 운동장에 라데츠키 행진곡 울려

▣ 어느 체육대회를 가더라도 빠지지 않고 울리는 음악이 있다. 라데츠키 행진곡이다. 라데츠키 장군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작곡한 것으로 요한스트라우스의 행진곡 중 가장 유명한 곡이라 할 수 있다. 경쾌하면서 유연한 흐름의 행진곡이다. 그리고 잔치 집을 상징하는 것이 만국기이고, 애드벌룬이다. 운동장 가득 덮은 만국기가 펄럭이고 있었고, 하늘 높이 애드벌룬이 두둥실 떠 올라 멀리서도 광운총동문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교엔 서른한번째 체육대회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됐고, 운동장 가장자리로 각 기별 텐트가 가지런히 설치돼 보기 좋은 모양을 갖췄고, 각 텐트 앞에는 각 기를 알리는 조그맣게 표시해 두었다. 동문들을 생각해 배려한 아이디어였다. 매년 동문밴드단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가을이라 행사가 많아 바쁘지만 참석 안 할 수 없었다는 김경환 동문은 어쩔 수

없이 가을에 하는 것이지만 단원들 참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개회식은 간략하게

어느 대회와는 다른 대회라는 판단에 따라 본부석 텐트도 설치 안 했을 뿐 아니라 간단하고 검소하게 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회의 취지였다. 대회사와 축사 그리고 화도선생께 헌화하는 것으로 개회식을 끝냈고, 이어서 광운80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수를 했으며, 21회 환갑 맞이 기념을 위해 케익 절단식을 류희근 총동문회장과 조무성 재단이사장, 김경채 교장선생이 참석한 가운데 조출한 기념파티를 가졌다. 그리고 본 게임에 들어가는 순서를 가졌다. 매년 치러지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동문들 개회식 참여는 전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 원인은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짐작해 본다. 점심시간을 정점으로 가장 많은 동문이 참여하는 것으로 봐선 그런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행사에 앞선 고문단 티타임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동문들과 더불어 총동문회 고문 역시 이번 대회에 모두 참석을 했다. 일부이긴 하지만 행사전에 교장실에서 류희근 총동문회장, 조무성 재단이사장과 김경채 교장 그리고 이승옥 고문과 조영재, 신만우 고문이 자릴 같이 했고, 이병성(5회) 대선배도 함께 차를 마시며 그간의 안부를 물었고, 금년도 체육대회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가을에 할 수밖에 없었던 다사다난한 한해였다는 것을 얘기하기도 했고 또는 건강과 관련된 얘길 나누며 담소했다.



▣...이번 대회에선 전에 없던 게임이 있었다. 도전 골든벨과 장애물이어달리기가 그것이다. 운동장 한 가운데 의자를 놓고 각 기에서 대표성을 띤 동문들이 참가해 문제를 푸는 게임으로 평소의 상식을 점검 받는 시간이었다. **도전골든벨, 장애물이어달리기 신설** 이어달리기는 경쟁의식 때문에 부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따라 몇가지 장애가 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달릴 수 있도록 했다. 부인도 필히 참석하도록 해 흥미를 더 했다. 마지막 스포츠에선 젓 먹던 힘까지 쏟으며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으며, 골인후의 세레모니 또한 진풍경을 만들어 응원하는 동문들과 가족들을 즐겁게 했다.

대선배 참석저조

▣...이번 체육대회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면 대선배들의 참석이 저조했다는 것이다. 1회3분, 2회1분, 3회3분, 5회15분, 7회5분, 10회1분이 참석해 모두 28분이 참석했다. 전 같으면 1회에 서만 열 분 이상 참석해 단상의 의자를 모두 채웠을 텐데, 단상의 의자 대부분이 비어 학교 선생님들이 자리를 메워줬다. 하지만 대회가 진행되면서 VIP연회석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많은 세월을 겪으며 경험했던 얘기들로 시작된 이야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였기 때문에 쉽게 동요되더라.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했다. 적은 인원이었지만 또 다른 분위기가 조성되니 그런대로 괜찮은 체육대회였다는 자평을 할 수 있었다.

화합한마당에선...

▣...매년 경험하는 것이지만 화합한마당 시간이 되면 동문 또는 가족들 장기가 다양하면서 그 수준이 점점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부동반으로 참석하는 동문이 증가하면서 부인들의 재치와 율동이 보통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음악이 있건 없건 단상으로 스스로없이 올라와 자신의 장기자랑을 서슴없이 보여주면서 스트레스를 날리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선 각자의 텐트에서 장기자랑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유신시대를 경험한 동문들은 새로운 분위기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흐뭇한 감정을 느끼는 듯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해 더욱 실속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종합우승 및 종목별 우승

▣...종합우승을 28회 동문들이 차지했다. 각 게임에서 고른 결과를 얻어 종합점수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어 우승을 한 것이다. 준우승은 31회가 차지했고, 종목별로 홀라후프 1위에 28회 임종덕 동문이 차지했으며, 2위는 21회 최대식 동문이다. 골든벨에서는 1위에 32회 김영목 동문이 차지해 젊은 두뇌의 효력을 유감 없이 발휘했고, 2위에 22회 양승호 동문이 차지했다.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장애물통과릴레이에선 28회가 1등을 했고, 마지막 주자였던 장봉학 동문 부인인 김용희 님이 실력발휘를 해 특별히 자전거를 부상으로 받았다. 족구에선 28회가 우승을 했고, 준우승은 31회, 행운대상엔 16회 서우식 동문이 478번을 움켜쥐고 있다가 행운을 얻었다.

2014년도 '총동문체육대회'

교문을 들어서면 표정이 달라지는 건...

▣...많은 동문들이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교를 찾는 것은 대략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일 것이다. 그 첫 번째가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과 얼굴을 보기 위한 목

적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 지난 어린 시절의 향수가 있기에 참여해 추억을 되새겨 보려는 것일 것이다. 대부분의 동문들은 교문을 들어서기 전까지는 근엄한 얼굴로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교문을 들어서서는 순간 표정이 180°로 바뀌었다. 평소

의 몸가짐이 몇 년 또는 몇 십 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양이다. 다시 십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이다. 환하게 밝아지면서 적당한 저속어도 섞어가면서 친구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분명 십대들이었다.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전세버스로 출발한 동문, 승용차로 동승해 출발한 동문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가 지난해 10월30일(목) 원주 센추리21CC에서 류희근 총동문회장과 양인석 골프동호회장 그리고 김영건 고문, 신만우 고문과 많은 동

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서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동문회 측에서 전세버스를 잠실에 준비해 편히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 특성상 승용차로 이동하는 동문들은 인근의 동문과 합

계 동승해 대회장으로 이동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모두들 도착을 했다. 라운딩 하기에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날씨였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많은 동문들이 참가했고, 모두 28개팀이 참가했고, 게스트로 1팀이 동참해



모두 29개팀이 센추리21CC 홀을 모두 차지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동문들이 모두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그리고 모두 이동해 류희근 총동문회장과 김영건 고문, 양인석 골프동호회 회장이 시타를 참관했고, 시타가 끝나면서 모두가 카트를 타고 자신의 홀로 이동을 했는데, 이 장면 또한 장관이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동하는 듯 줄줄이 이어진 카트의 행렬이 볼만한 연출이었다. 그리고 각자의 출발지인 홀에 도착하면서 라운드에 들어갔다. 계곡 전체가 울긋불긋 단풍으로 갈아입어 황홀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고, 이들 나뭇잎도 머지않아 생명을 다하는 듯 보였지만 나뭇잎은 자신의 분신을 날려 또 다른 생명을 잉태 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종족을 번성 시키는데 일익한다는 것이다. 그런 영향인지 대부분의 동문들 첫 티샷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말은 안 하지만 눈빛을 봐선 모두가 들뜬 분위기란 것을 쉽게 읽을 수 있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문들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했다. 총동문회장배 골프

대회가 실력을 과시하기 위한 대회는 아니다. 선후배가 한 자리에 모여 얼굴을 익히고 일상에서 벗어나 부담 없이 자연을 만끽하며 편안한 하루를 보내자는 것이 첫 번째 의도다. 그리고 동문들간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자리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대회이면서 복잡한 생각을 안 해도 될 뿐 아니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대회인 것이다. 골프는 못 치는 이유가 100가지나 된다는 말이 있다. 라운드를 모두 마치고 마무리 행사장인 연회장에 모여 대회와 관련된 여담을 주고받으며 마무리 행사를 진행했다. 류희근 회장의 대회사를 들을 수 있었고, 내년에는 더 잘해보자는 건배와 함께 행운권 추첨에 들어갔으며, 행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저녁을 겸한 한잔 술을 마시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엔 32회가 우승을 했다. 그러나 금년엔 아무상도 못 받았다고 투덜대는 동문이 있었지만 내년을 기약하자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웃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류희근 회장 양인석 동호회장의 시타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를 시작을 알리는 시타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있었다. 형형색색의 연기를 날리며 포물선을 긋고 날리는 공이 아름답게 보였다. 이를 기념이라도 하듯이 참관한 동문들이 박수를 보냈



고, 이어서 꼬불꼬불 이어진 길을 따라 달려서 각자의 위치로 갔다.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는 13회 동문이며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조영재 고문이 테이프를 끊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당시 골프는 고급스포츠로 재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가능했으며, 일반 대중 스포츠와는 다른 형태였다. 그러나 대중화 될 것을 예측해 조영재 고문이 시작을 했던 것이고, 또한 이런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봤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운동도 하면서 세상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대부분이 전자통신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동문들이라 이와 관련된 정보를 나누는 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 생각한 것이다.

명봉산,국수봉 정기를 받아

원주시내에는 주위에 크고 작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가 게임을 한 센추리21CC도 원주시내를 둘러싼 명봉산과 국수봉 자락에 있어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조선시대 이종숙을 일컬어 벽계수라고 하는데, 이분의 묘가 있기도 한 곳이다. 한때는 조선의 명기 황진이 가 사랑을 했지만 이루지 못했다는 일화가 있으며 그 시 또한 유명하다. “靑山裡碧溪水 莫誇易移去 一到滄海不復還 明月滿空山 暫休且去若何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가 어려오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었더리” 재학시절 한번쯤 들어봤던 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산세가 좋아선지 이종숙의 묘가 있는 고장이어선지 운치가 있는데다가 단풍까지 색동옷을 입고 있으니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 눈을 홀리기에 충분한 분위기였다. 계곡이나 능선에 자리 잡은 필드에서 터져 나오는 동문들의 소리가 메아리를 치기도 했다. 분명 뭔가를 잘 해서 나오는 소리인 듯했지만 골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외마디가 별거였겠는가. 사실은 감탄사만 나온 것도 아니었다. 깔깔대고 웃는 웃음도 메아리로 돌아오면서 큰 효과음으로 바뀌었다. 이렇듯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게임은 진행됐으며, 이번 행사에서도 고생한 집행부 동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다. 준비와 진행을 위해 애쓴 동문들이 있었기에 웃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마무리 행사, 시상을 보면,

매번 게임을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과는 달리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이 마무리 행사에서 행해지는 시상과 행운상이다. 혹여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까? 내 번호가 불려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지만 늘 피해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조리는 경우가 있어 재미있는 시간인 것이다.

- 메달리스트:유남근 74타
- 우승:최기영
- 롱게스트:고성용
- 니어리스트:이수정
- 다버디상:최봉학 성기봉 윤준섭 서승수 황남표 임영재 류희근 이수정 박영숙 안천호 정덕진
- 다파상:남구헌
- 다보기상:김귀중
- 행운상:변교중

<기획취재>

‘청주시역동문회 모임 탐방’

지난해 9월23일(화) 저녁7시에 청주시역동문회(회장, 권태욱,20회) 모임이 있었다. 총무 방동진(24회)동문이 운영하는 ‘청우해물칼국수’에서 모인 것이다. 청주시역동문회는 1991년 청주MBC 상무로 근무하던 최인열 동문의 협조로 동문회가 결성돼 50여명이 모이게 됐다. 이 자리에서 유종렬(18회) 동문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총무는 윤세균(19회) 동문이 맡았다. 당시 청주MBC에 근무하던 동문들을 수소문했고, LG산전 등에서 근무하던 동문들

이 주축이 되어 청주시역 인근에 살거나 직장을 갖고 있던 동문을 수소문 해 모임을 유지해 왔다. 그렇게 4년여 동안 회장을 맡아오던 유종렬 동문이 임기를 마치면서 이응세(12회) 동문이 바턴을 이어받았고, 총무는 정승일(24회)동문이 맡아 청주시역동문회를 이끌어 오던 중 맥스전자 하청을 하던 이응세 회장의 회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면서 미국으로 이주했고, 1996년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1998년 아쉬운 마음에 동문회가 재결성되어 유종렬 동

문이 회장을 맡아 오늘날까지 동문회가 유지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현재는 권태욱 회장을 중심으로 매월 네 번째 화요일 저녁에 모임을 갖고 있으며, 봄가을로 충청권으로 야유회를 간다고 했다. 이날 모임에 류희근 총동문회장도 청주시역동문회 모임 독려를 위해 참석해 총동문회의 현주소를 알리고, 총동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가지 사항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 첫째가 금년도 총동문체육대회에 청주시역에서도 많이 참석해 줄 것과 광운80년을 맞아 ‘광운80년사’ 제작에 협조해 줄 것과 가칭 전자과학박물관 설립에 청주시역동문회에서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청주시역동문회에 참석한 12명의 동문들은 서로가 서로를 염려해 주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걱정해주는 모습을 간간히 볼 수 있었다. 평소 모임에선 더 많은 동문이 참석하는데 이번엔 이런저런 사유가 발생한 동문이 있었다면서 총동문회장이 참석했는데 더 많이 참석치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이날 모임장소로 제공된 청우해물칼국수에선 손님에게 제공하는 정식 메뉴에 없는 음식을 제공했다고 했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방동진 총무의 부인과 딸까지 동원해 정성을 듬뿍 담아 준비했다고 했다. 이런 사연이 전해지면서 참석한 동문들은 맛깔난 음식으로 포식할 수 있었다. 이번 모임에서 청주시역동

문회와 총동문회와의 유대관계가 더욱 돈독해져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기웅(24회)동문은, 청주시역동문회 막내가 33회다. 현재 60회가 넘었는데 막내가 33회란 것은 어딘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청주시역동문회를 더 많이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총동문회가 도와줬으면 한다면 동문들간 친화력을 갖기 위해선 생각보다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동문이란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만남만으로 급속히 가까워질 수 있다고 했다. 청주시역동문회는 인근의 청주시역동문회 모임에도 참석을 해 끈끈한 정을 나누고 있다고 했다. 동문이라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배우고 익히면서 3년이란 세월을 어깨동무해 왔기 때문이란 것이 청주시역동문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연락처> 회장 권태욱 011-469-4450 총무 방동진 010-7561-5151



2014년 총동문추계가족 등반대회

총동문산악회(회장, 임철원,22회)는 지난해 11월9일(일) 오전10시 독립공원에 모여 2014년 추계가족등반대회를 27회 주관으로 류희근 총동문회장과 김경채 교장선생이 참가한 가운데 등반대회를 가졌다. 지하철3호선 독립문역 4번 출구로 나와 독립공원에 모여 정해진 식순에 의한 국민의례를 했고, ‘안산자락길’을 따라 7km를 걸었다. 가을단풍이 아름답게 든 안산자락길은 서대문구청에서

산 주위의 깊은 숲길을 나무데크로 길을 만들고 본래 등산길을 자연의 숲길을 그대로 살려서 만들어 놓은 친환경 서울의 안산 둘레길로 순수한 우리말로 자락길이다. 2013년11월에 완공된 안산자락길을 걸어본 사람들은 서울 도심에 이런 코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천혜의 혜택을 누리려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하고들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안산을 중심으로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은동, 홍제



동 어느 지역에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곳으로 편안함을 준다. 난이도가 있는 코스는 나무데크로 조성해 안전하게 도심의 광경을 보면서 걸을 수 있어 지루함을 덜어준다.

여름에는 풍성한 숲이 주는 맑은 공기와 쉽게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분위기이고, 가을에는 적절한 단풍을 볼 수 있어 눈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으며, 겨울이면 서울시내 전체가 하얗게 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곳곳에 설치된 정자와 전망대와 확 트인 곳에서 보는 사방의 서울전경 조망은 일품이다. 이번 대회는 27회(회장, 김기웅)에서 맡아 진행했고, 광운총동문산악회 임철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류희근 총동문회장과 김경채 모교 교장선생님의 참석으로 대회가 한층 빛나고 있다면서 고마움을 전한다고 했고, 동문여러분들도 즐거운 날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참석한 동문들은 정상에 올라 각자 준비해온 점심을 나누어 먹고 곳곳에서 기념촬영을 하면서 하산을 했고, 동기별 또는 가까이 지내는 동문들끼리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선물집으로 향했다.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무더운 어느 여름 한낮에 종로에 나갔던 나는 더위도 피하고 친구도 만날 겸 해서 고교동창 유명만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세운상가 옆 길가에 위치한 여나무평 정도의 조그마한 전기용품 상점이었지만 동창들이 자주 찾는 컴퓨터이기도 했습니다. 세운상가에서 장사하는 동창들이 몇 명 있었지만 특히 이곳을 선호하는 이유는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는 번거로움도 없거니와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을 아주 싸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날도 친구와 만나 이런저런 동창 얘기를 하고 있던 중, 웬 젊은 사람이 가게 안으로 불쑥 들어오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에이 시팔! x같은 학교 나와서 고생 x같이 하네..."라며 투덜대는 것이었습니다. 형세를 보니 이곳에 자주 왕래 하는 손님으로 가게주인과는 꽤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아서 내가 냉큼 끼어들었습니다. "어느 학교 나오셨는데요?"하고 묻자 그는 잠시 뜸을 들이고 있다가 "있어요. 저어기 장위동에 있는..."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장위동'이라는 친숙한 말에 갑자기 전류에 감전된 듯 촉각이 곤두섰습니다. 나는 능청스럽게 "장위동에 있는 학교라면 Y학교군요. Y학교 나오셨어요?"하니 그는 나를 응시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야노 거~ 광운이라고 있어요."하면서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나는 곧 바로 "광운요? 광운은 명문인데, 정말 좋은 학교 나오셨네요."라고 완곡하게 한마디 던지니 나를 보는 그의 눈이 정겹게 변해갔습니다. 나중에는 선배라는 걸 알고는 모두 웃어 넘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던 60년대에는 '보릿고개'라는 春窮期가 있을 정도로 모두가 궁핍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세상천지에 널려있는 텔레비전도 그 당시엔 황의 상징으로 여겼던 시절이었지요. '조기교육', '재

농두렁 밭두렁이 손짓 해...

장순권(15회)

농교육'이 다 뭐니까! 이름 석 자 익히고 국민학교에 입학한 애들이 뭘이나 뻘나요? 나 같은 경우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내 주위에는 편모 또는 편부 슬하에 있던 친구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라온 가정환경이 험난했다는 걸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재능이나 꿈'이라는 말은 사치스러운 뿐 그저 하루 세끼 먹고 자는 것으로도 만족하며 살았던 세대입니다. 청년기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세상에 대한 증오와 자신에 대한 모멸감을 억지로 억누르면서 살아왔던 세대지요. 고등학교 입학 당시엔 모교의 이름을 '東國電子'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동국'이 무엇을 의미하고 '전자'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당시엔 그저 동네 이웃 아무개의 이름처럼, 소다니는 견공 이름처럼 건성으로 듣고 부르기만 했었습니다. 校帽에 달고 다니는 帽標는 지금 생각하면 굉장한 과학의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전자궤도'를 표시했었지요. 물리학이나 핵물리학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 그림이 모표였다니 정말 생각만 해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린 어땠습니까? 모표에 담긴 의미를 자랑하거나 자긍심을 갖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모두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실업계인 상업학교나 공업학교에 진학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가정형편이 열악하여 졸업 후 곧바로 사회로 나가 돈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재능이나 꿈과는 거리가 먼 불가피한 선택이었지요. 고교 졸업 후 10년 혹은 20년 후에 학교에서 배웠던 '전자공학'이나 '무선통신공학'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졸업생 전체의 10% 미만이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전자공업'은 눈부신 발전

을 해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너무 역설적인 현상입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꿈을 짓밟힌 세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들 조상도 그랬지만... 내면에서 자라고 있던 꿈을 실현시키지 못했고 생계에 급급했기 때문에 현실과 꿈의 거리는 너무 멀었던 것이었죠. 대부분의 동창들이 일찌감치 자기의 꿈과 이상을 찾아 '전자궤도'를 탈출하기도 했습니다만, 나 같은 경우는 만년에 이르기까지 그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꿈이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전자궤도에 매달린 꼴이었지요.

농업 할 사람은 농업을, 각자가 할 몫 찾아 정해진 대로 사는 것... 반질반질 아스팔트보다는 미생물이 밀어 올라오는 탄력 넘치는 흙위가 좋아

중국 고전에 '居視其所親'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居자는 있을 거, 또는 살 거 즉 어디어디에 있다, 어디어디에 살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집에 있다.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말로 '은퇴해서 집에 있다'라고 해석해도 무난합니다. 이 말은 '은퇴 후에 그가 어떤 것과 친해지는 것을 보면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은퇴 후에 어떤 사람은 여행을...,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기를 즐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서예를, 어떤 사람은 악기 연주를 배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춤을, 어떤 사람은 수지침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뭘하고 있나구요? 나는 심심풀이로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배우고 싶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만... 올 여름 들어서면서 동창 박희재의 행적이 묘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전북 고창에 정착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옛그제에는 건우회 카페에 단내가 물씬 풍기는 감나무 사진과 함께 귀농 소감도 밝혔습니다. 친구들 중에 전라도 친구가 없었는데 이제 박희재가 호남 사람이 되어 전라도 친구가 생긴 셈이지요. 꼭 그곳에서 태어났다고 전라도 사람인가요. 그곳에 살면 그쪽사람이지... 박희재는 그동안 '귀농'을 꿈꿔 왔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드넓은 초원에서 끝없이 펼쳐진 공간을 가슴에 안고 자연의 품속에서 순응하며 살고 싶은 소박한 꿈과 욕망이 있습니다. 박희재가 원래 농촌 출신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고교졸업 후 지금까지 '전자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질반질한 도시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느지막이 도시에서 농촌을 찾은 것입니다.

사마천*史記의 '화식전(貨殖傳)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업으로 부를 얻는 것을 으뜸이라 하고 상업으로 부를 얻는 것은 그 다음이며 간사하고 교활한 수단으로 부를 얻는 것은 가장 저급한 것이다. 굴속에서 기이하게 사는 선비의 행위는 그렇더라도 그 외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면서 인의라는 말만 좋아한다면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다." 是故本富爲上, 末富次之, 姦富最下, 無巖處奇士之行而長貧賤 好語仁義 亦足羞也 여기서 '本'이란 농업을 의미합니다. '農事之大本'이라고 하잖아요. '末'이란 상업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끔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의 본래의 뜻은 농업을 할 사람이 상업의 하거나 또는 반대로 상업의 하거나 사람이 농업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농업은 자연친화적인 생업입니다. 햇볕과 바람과 비와 흙으로 빚어낸 채소와 열매로 생명을 보전하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입니다. 새벽에 울리는 도시의 날카로운 자명종 대신 창살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에 일어나고 반질반질한 도시의 아스팔트 대신 수역의

미생물이 밀어 올라오는 탄력 넘치는 흙 위를 걷습니다. 박희재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혼 속에는 늘 농두렁 밭두렁이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파이팅!



〈15회 장순권 동문〉

(*註) 司馬遷은? 중국 전한前漢의 역사가 (BC145~BC86). 자는 자장子長이다. 기원전 104년에 공손경公孫卿과 함께 태초력太初曆을 제정하여 후세 역법의 기초를 세웠으며, 역사책 '史記'를 완성한 역사가이다.

동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총동문회에서는 동문 여러분 주위에서 발생 되고 있는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필, 시, 콩트 등 어떤 글도 상관없습니다. 동문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동문여러분의 어떤 형태의 글도 마다하지 않고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된 글은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문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많은 동문들에게 힘을 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삶의 활력을 줄 수도 있기에 정말 필요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가족이 작성된 글도 가능합니다. 가족 중 부인이나 자녀 또는 어린 손자, 손녀의 정성이나 그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원고료가 없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간단한 기념품을 장만해 가족들이 참여하는 글에는 선물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문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동문회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바랍니다.

개나리 광장



21회 완강기념 맞이

매년 연중행사로 치러오던 완강 맞이 행사를 금년엔 21회 텐트 앞에서 체육대회행사에 참가한 동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케익 절단식을 가졌다. 류희근 총동문회장과 신상길 21회 동창회장,

조무성 재단이사장과 교장 선생이 참석해 덕담을 주고 받았으며,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해 줄 것을 당부했고, 21회 동문들은 붉은 자켓을 준비해 입고 붉은색의 의미대로 태양과 같이 살겠다고 했다.

개교 80주년 기념식수



지난해 10월19일 있었던 총동문체육대회 개회식을 끝내고, 교문을 들어서면서 오른쪽 자전거 보관소 인근에 마련된 장소에 개교 8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수를 했다. 주향수(18회)동문이 17년생 반송을 기증 하면서 개교기념일에 하려던 것을 총동문체육대회가 있는 날에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 류희근 총동문회장과 조무성 재단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수를 한 것이다. 반송은 품위가 고고하고 변함없이 푸르고 높아서 선비들이 즐겨온 나무로서 지표면 가까이부터 가지가 형성되어 있어 다복술이라한다.



의견을 묻습니다

지금까지 총동문회에서 발행한 회보가 19회입니다. 열아홉번의 회보를 보내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 왔다고 보고 있는데 동문들의 반응은 어떤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 총동문회의 솔직한 입장입니다. 매회 발행될 때마다 동문들 손에 잡혀 읽혀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여러 조건이 안 맞아 제대로 배달도 안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도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동문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문들의 관심도도 확인할 겸 몇가지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총동문회 회보가 현재의 방식대로 발행되는 것이 좋은지 묻고 싶습니다.
- 두 번째, 첫 번째에서 아니라고 생각되는 동문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이 좋은지 묻고 싶습니다.
- 세 번째, 현재 발행되는 소식지 회보의 제호가 '光云電子高總同門會' 라고 쓰여있습니다. 이 제호를 바꾼다면 어떤 것이 좋은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타교에서 흔히 하고 있듯이 포괄적 의미가 담긴 뜻으로 학교와 연관 있는 단어들을 선택해 주십시오. "월계" "연촌" "무선" "전자탑" "월계광장" "연촌광장" "연촌별" 등이나 휘문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보 제호처럼 해도 좋습니다.

'2014년 하계설악캠프'

2014년도 하계휴가설악캠프가 지나해 8월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간 설악산 야영동에서 있었다. 임철원 광운산악회장을 비롯한 40여명이 조로 나뉘어 첫날은 별을 따는 소년들의 길을 등산하거나 경원대길을 등반하기도 했고, 둘째날에 4인의 우정길을 등반했고, 일부는 워킹으로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피부로 느끼고, 마지막 날엔 행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땀을 흘리며 그 동안 지친 심신을 달래는 동문들의 표정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

고, 산행을 끝내고 갈증을 해소하는 시원한 맥주는 세상의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맛을 느꼈다. 깎아진듯한 바위 사이사이를 이용해 아슬아슬 과정을 거쳐 정상에 밟는 느낌은 안해본 사람은 그 느낌을 모를 것이다. 또한 천하절경이라 표현하는 설악산의 비경을 감상하면서 계곡으로, 능선으로 해서 정상을 밟는 과정은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있어도 통쾌함과 세상을 모두 가진 듯한 느낌은 영원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여유시간을 이용해 해변에

서 수영을 하면서 물놀이를 하고 해변을 거닐었던 것들이 이번 여름휴가를 겸한 하계설악캠프의 크나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 푸짐한 먹거리도 즐거움을 주는데 한몫을 했다.

임철원 광운산악회장

하계캠프 마무리 인사말

하계캠프에 동참했던 동문여러분! 무사히 귀가는 하셨는지요? 설악캠프에 많은 동문들께서 참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여러모로 불편한 점 많았리라 봅니다. 동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충분한 준비를 하려 했으나 부족한 점 많았습니다. 식재료를 밭에서 선뜻 내어 주신 동문, 많은 피자를 만들어준 기현 친구, 술선수범으로 음식을 준비하여준 쉼프, 설거지 및 뒷마무리를 하여 주신 동문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하계휴가를 마무리 하게 되어 임원진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멋진 광운산악회 동문들이 넘쳐나는 산악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기를 바라며, 다음정기 산행에서 많은 동문들 얼굴들 보고 싶습니다. 동문여러분 사랑합니다.

김형태 동문

'김종필' 만화제작

김형태 화백(23회)이 2015년을 맞이해 신작 만화를 제작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 김종필을 주제로 만들어진 만화는 1월말 정도에 제작이 완료되어 배포 예정이다. 육사8기로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킨 당시 중령으로 정변에 참여한 김종필은 박상희의 딸 박영옥과 결혼해 35세에 육군 준장으로 진급 후 예편했다. 9선 국회의원으로 최다선 국회의원 출신이며 제11대, 31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였다. 김영삼, 김대중과 함께 3김이라 불리며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었으며, 민주공화당과 자유민주연합 등의 총재를 지낸 일대기를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동문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견은 이메일로 내주시면 됩니다. story1919@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동문회 운영은 동문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문회 및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동문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업은행 388-084734-01-017 SC은행 459-10-000999 광운총동문회]